



프로야구 42번째 시즌 개막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10개 구단 주장 등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국 감독 “KIA, 올 시즌 가장 높은 곳 향해 출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KIA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이 30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2023 시즌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주장 김선빈, 키플레이어 김도영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김 감독은 “작년 가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열심히 준비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선수들 준비를 잘했다. 팬들의 성원을 잘 알고 있다. 올해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출발하겠다”고 2023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시즌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이뤄지지만 아쉽게 1경기 만에 ‘가을잔치’가 끝난 만큼 김종국 감독은 올 시즌에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뜨거운 가을을 보내겠다는 각오다.

새 시즌의 첫 단추는 새 외국인 투수 손 앤더슨이 끼운다.

김종국 감독은 “좋은 구위와 제구 등 컨디션이 가장 좋다”며 4월 1일 오후 2시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2023 시즌 개막전 선발로 앤더슨을 낙점했다.

SSG에서는 좌완 김광현이 개막전 선발로 출격한다.

“가을야구에서 만날 것 같은 두 팀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사령탑들은 투·타의 밸런스가 좋은 LG 트윈스와 KT 위즈를 ‘공공의 적’으로 꼽았다.

KIA는 강인걸 NC 다이노스 감독으로부터 1표만 받았다. 눈길 끄는 팀은 되지 못했지만 KIA는 올 시즌 ‘짧은 피’로 초반부터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김종국 감독은 “운영철을 5선발로 확정했다. 스

내일 개막전 앤더슨 선발

5선발은 운영철로 확정

KIA 우승하면 ‘세차’ 공약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시범경기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로는 5선발 자격이 충분하다. 신인 박도규도 개막 엔트리에 확정됐다. 기대가 많이 되는 두 선수다. 많이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이드암 임기영, 좌완 김기훈과 선발 경쟁을 했던 ‘고졸 투키’ 운영철은 정교함으로 5선발 자리를 차지했다. 또 시범경기에서 ‘깜짝 호투’를 선보인 역시 고졸 신인 박도규도 개막 엔트리에 합류해 프로 데뷔전을 기다리게 됐다.

“광주일고” 사령탑들의 대결도 이번 시즌 관심사 중 하나다.

올 시즌 영경업 감독이 LG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복귀하면서 KIA 김종국 감독, KT 이강철 감독과 함께 세 명의 광주일고 사령탑이 지략 대결을 펼치게 됐다.

“막내” 김종국 감독은 “지난 시즌 LG와 KT에 열세였다. 두 분 감독님이 선배님이지만 올해는 열세를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KIA는 LG에 6승 10패, KT에 5승 1무 10패를 기록한 등 열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KIA는 ‘세차’라는 우승 공약을 내세웠다.

김선빈과 함께 미디어데이에 참가한 KIA 내야수 김도영은 “기아 자동차를 타는 팬분 중에서 추



2023 신한은행 SOL KBO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침을 해 선수단이 직접 세차를 해주겠다”고 ‘우승 공약’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저력을 믿고, 전력을 다해’... 오프닝 시리즈 다양한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2023 시즌 오프닝 시리즈를 맞아 “TIGERS HERITAGE; 저력을 믿고, 전력을 다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KIA는 오는 4월 7일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2023 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올 시즌은 1983년 V1 40주년이 되는 해. 새 봄을 맞는 KIA는 이번 오프닝 시리즈를 통해 선수단과 팬에게 명가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각오다.

오프닝 시리즈의 시구는 첫 우승 40주년을 기념해 ‘타이거즈 헤리티지 팬’들이 맡는다.

개막전인 7일 시구는 1983년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 가입자인 김영대씨가 한다. 시타는 올해 어린이 회원인 박건우(8) 군이 한다.

이날 애국가와 팸페라 그룹 ‘레디스’의 리더 김아람 소프라노가 담당하며, 경기 전에는 ‘스트리트 걸스파이더’에서 활약했던 광주지역 댄스팀 ‘미스몰리’가 축하 공연을 한다.

오프닝 시리즈 둘째 날인 8일에는 지난해 ‘KBO 디지털모전 대상’을 수상한 3대째 타이거즈 팬인 심재희씨 가족이 시구와 시타를 맡는

다. 테너 박현이 애국가를 부르며, 비보잉 그룹 ‘진조크루’가 경기 전 그라운드 군무를 선보인다.

오프닝 시리즈 마지막날에는 1983년 타이거즈 어린이 회원인 노병국씨가 시구자로 나선다. 노씨는 82년부터 85년까지 4년 간 어린이 회원에 가입한 열혈 타이거즈 팬이다.

팬 사인회 행사도 마련됐다. 첫째 날 최형우·양현종을 시작으로 둘째 날 김선빈·김도영, 마지막 날은 정해영·이희리의 사인회가 진행된다.

풍성한 기념품도 준비됐다.

KIA는 7일 입장 관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도심형 SUV 셀토스(Seltos)를 증정한다.

또 KIA는 3연전 동안 입장 관중에게 신규 응원막대인 ‘페이퍼 스틱스’ 1만 5000개와 응원 깃발 700개를 나눠준다.

한편 개막전 티켓은 경기 개시 7일 전인 31일 오전 11시부터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문가들 “4강은 LG·KT·키움·SSG”

KIA는 ‘6중’ 전력으로 전망

4월 1일 개막하는 2023 시즌 KBO 리그는 LG를 필두로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 SSG 랜더스가 ‘4강’을 이룰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우세하다.

이순철(SBS스포츠), 박용택(KBSN스포츠), 민훈기(SPOTV) 등 프로야구 해설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올해 KBO 리그는 ‘4강 6중’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4강 팀에서 부상 선수가 속출하고 6중 팀이 자유계약선수(FA)와 외국인 선수로 전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절대 크지 않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민훈기 해설위원은 “LG가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안정된 팀으로 보인다”며 “키움은 늘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다. 외국인 투수가 보강됐고 이정후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위원은 LG와 키움을 KT, SSG와 함께 4강으로 묶으면서도 “부상 변수가 생기고 겨울에 하위권이 전력 보강을 많이 해서 그 어느 시즌보다 예측불허의 치열한 시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위원은 “원래 한화, 삼성을 빼고 중위권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봤었는데 오히려 시범경기에서 너무 잘하고 있다”며 “한화는 전력이 굉장히 단단해졌고 삼성은 젊은 선수들이 바짝 잘해주고 있

다”고 평가했다.

이순철 해설위원은 “SSG가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새 외국인 투수 에니 로메로가 (어깨 통증으로) 빠져있고, 선발로 돌아선 문승원 선수가 부상 없이 전체 시즌을 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불펜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한편 KIA에 대해선 “외국인 투수 두 명이 문제 없이 투구하고 있고 불펜의 좌우 균형이 잘 맞다”며 “양현종, 이희리가 잘 활약해주고 (팔꿈치 수술을 받은) 장현식이 4월 중순에 복귀한다면 크게 밀리지 않는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박용택 해설위원은 “KT가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있지만 선발진이 워낙 좋아서 우승 후보로 꼽고 싶다”며 “키움은 3강에는 부족해도 가을 야구를 하기에는 충분한 전력”이라고 짚었다.

LG에서만 18년을 뒀 고는 친정팀에는 엄격한 잣대를 댔다.

박 위원은 “불펜이나 타선은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인 선발 두 명이 탄탄하지만, 국내 3선부터 몸통파다”라며 “반드시 우승하는 팀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들은 올 정규시즌에 컨디션 난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민 위원은 “일부 선수들이 루틴이 깨진 뒤 컨디션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초반 각 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퍼거슨·벵거 감독 EPL ‘명예의 전당’ 올랐다

감독으로 입성은 처음

알렉스 퍼거슨(81)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감독과 아르센 벵거(73) 전 아스널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EPL 사무국은 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설적 사령탑인 퍼거슨 경과 벵거 전 감독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각각 맨유와 아스널에서 놀라운 유산을 창조했고, 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벌 관계를 만들며 둘이 합쳐 16개의 EPL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고 소개를 덧붙였다.

2021년에 생긴 EPL 명예의 전당에 감독으로서 입성하는 건 이들이 처음이다.

첫해엔 앨런 시어러와 티에리 앙리, 데이비드 베컴, 스티븐 제라드, 에릭 칸토나, 로이 킨, 테니스 베르흐캄프, 프랑크 램퍼드가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세르히오 아케로, 디디에 드로그바, 웨인 루니, 패트릭 비에이라 등 선수 시절 업적을 인정받은 8명이 추가됐다.

EPL에서 가장 성공한 감독으로 꼽히는 퍼거슨 경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27년간 맨유를 지휘했다.

이 기간 정규리그에서 두 차례 3연패를 일구는 등 총 13차례 우승을 경험했고, 810경기를 지휘해 528승을 거뒀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팀과 선수를 성장시킨 퍼거슨 경은 리그 ‘올해의 감독’에 11번이나 선정됐고, ‘이달의 감독상’은 27번 받았다.

그의 제자였던 베컴과 루니 등 6명의 선수가 현재 명예의 전당에 입회했으며,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도 맨유에서 펠 당시 퍼거슨 경의 지도를 받았다.

퍼거슨 경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돼 진심으로 기쁘다. 인정받게 돼 영광”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퍼거슨 감독

나라는 사람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맨유에서 맡았던 일, 우리가 수년간 가지고왔던 유대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단과 스태프,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 일은 팬들을 행복하게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다”며 맨유 사령탑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벵거 전 감독은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2년간 아스널을 이끌며 3차례 우승했다. 특히 2003-2004시즌엔 ‘무패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남긴 바 있다.

EPL에서 828경기를 치르며 476승을 거뒀고, 팀을 정상에 올려놓은 1998년과 2002년, 2004년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벵거 전 감독 역시 “명예의 전당 멤버로 선정돼 매우 감사하다. 우리는 항상 팬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